

보육교사의 소진과 정신건강: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정명선
충부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Childcare Teachers' Burnout and Mental Health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Myung-Sun Chu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호요인에 관해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소진과 정신건강 간 관계를 검토하고, 동시에 이들 관계를 완충할 수 있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29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소진, 정신건강, 자기자비를 포함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용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년수, 일평균 근무시간)을 통제한 다음 동시입력 방식의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확인된 조절효과는 전통적인 단순회귀선 검증 및 Johnson-Neyman 기법의 유의영역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에게 있어서 소진의 증가는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자기자비는 보육교사의 소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특히 자기자비는 소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조절효과의 패턴 중에서 보호적 역할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개입을 위해 소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기자비라는 새로운 조절인자이자 개인 보호요인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mental health in childcare teacher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protective factors, and to consider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that could buf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A sample of 229 childcare teachers completed a self-reported battery of questions that included measures of burnout, mental health, and self-compassion. For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rough the simultaneous-entry method was performed after correct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marital status, level of education, years of teaching service, and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using the PROCESS macro for SPSS. In addition, the identified moderating effect was probed in-depth using a traditional simple slope test and the Johnson-Neyman technique for regions of significance. Fir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crease in burnout was linked to an increase in mental health problems. Second, self-compass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mental health. Specifically, self-compassion played a protective role by reducing the degree of mental health problems despite increased burnout. The study is meaningful in both the awareness of the menace of burnout and the discovery of a new moderator and individual protective factor, namely self-compassion which could be useful for interventions targe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care teachers.

Keywords : Childcare Teacher, Burnout, Mental Health, Self-Compassion, Moderation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Chung(Joongbu Univ.)

email: coup001@hanmail.net

Received August 17,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September 8,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전인적이고 포괄적 방향으로 교육목적이 변화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범위 역시 점점 확대되어 왔다[1]. 특히 보육교사는 그 어느 나이대의 교육대상보다 밀착된 관계로 오랜 시간을 영유아와 생활해야 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까지 함께 수반한다[1,2]. 영유아의 입장에서 연령상 인지·정서·신체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조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양육자의 입장에서 최초의 교육투자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3], 양면적으로 교사에 대한 요구와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육교사는 단순 보호자 역할을 넘어 양육자, 의사소통자, 교수자, 평가 및 기록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가정교육과 앞으로의 초등교육을 매개하는[4] 상호관련성 있는 축적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역할에서의 질적 변모까지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직무요구의 양적·질적 심화는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개인성취감 결여(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의 증상으로[5] 정의될 수 있는 소진(burnout)의 대표적 발생기제로 제시되고 있다[6]. 간단히 말해, 탈진으로도 불리는 것처럼 소진은 심리적으로 고갈된 쇠약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보장되었음에도 보육교사 48%가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로 응답한 실태 조사 결과는[7] 직무요구에 비례하지 못하는 지원을 증명하며 보육교사의 소진을 보고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진의 의미나 현 근무환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진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교사는 소진과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문제에 취약한 직업군으로 이미 부상했고[8], 소진은 신체적 건강을 해지기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문제로 발현된다. 예컨대, 인간 부적응의 잦아들 불안과 우울뿐만 아니라 분노, 죄의식, 두려움, 불만, 비판, 무기력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적신호를 나타낸다[9]. 이는 또한 교사의 결근, 나이가 이직으로 연계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10], 조직효율성 측면에서는 기관 및 당사자의 상당한 부담과 비생산적 기간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고[11], 교육적인 면에서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한다[3,12].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체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소진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절하여 일종의 완충제로 기능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보호요인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방면으로 연구된 것은 자존감(self-esteem)으로 100년 이상의 연구역사를[13]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이의 긍정적 효과와 심리적 이점이 강조되고 있다[14]. 이와 연계해서 교사라는 대상에서 보았을 때에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나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을 제시할 수 있다[15]. 그러나 이는 교사의 정신건강 이전에 교수·학습 관련 포괄적 교육장면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통적 변인으로[3], 본 연구는 교사 개인, 즉 '자기(self)'와 관련한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다.

최근 심리학 및 인접 분야에서는 심신의 건강에 기여하며 특히 정신건강을 위한 조절인자로 자기자비(self-compassion)가 제안되고 있다[14]. 이는 긍정심리와 동서양 심리학이 함께 주목하고 있는 심리적 구인으로, 그간 연구들에서 밝혀진 자존감이나 효능감에서 보일 수 있는 자기왜곡(self-distortion)[16]이나 흔히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불리는 과도한 자기에[17,18]와 같은 부작용 없이, 자신을 보다 건강하게 수용하게 하므로 새로운 보완책이 될 수 있다[14]. 자기자비란 자기평가에서 오는 자신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되, 고통스럽거나 미흡하고 실패한 상황에서 자기비판보다는 자신에 대한 사려 깊은 친절과 이해의 발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9].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동등하게 열려있는 개념이며[18], 교사집단의 경우 삶과 교육장면에서 본인 또는 학습자 등의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 가능한 우울을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것으로[14] 밝혀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자각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다루고 변화시키며,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더 많은 행동과 레퍼토리를 발견하고 촉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18,19].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리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보육교사를 위한 자기자비라는 새로운 보호요인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의 소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소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의 자료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2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만 33세($SD = 8.94$), 연령범위는 만 22세~53세였으며, 그 외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특성(결혼상태, 학력, 근무년수, 일평균 근무시간)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29$)

Characteristics		Respondents	Percentage
Marital status	Single	110	48.0
	Married	115	50.2
	Et cetera	4	1.8
Level of education	Institute	28	12.2
	Two-year college	93	40.6
	Three-year college	39	17.0
	Four-year university	64	28.0
	Post-graduate degree	5	2.2
Years of teacher service	Less than 1 year	30	13.1
	1 ~ 2 years	43	18.8
	3 ~ 5 years	68	29.7
	6 ~ 7 years	28	12.2
	8~10 years	31	13.5
	More than 10 years	29	12.7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Less than 8 hours	34	14.9
	8~10 hours	112	48.9
	10~12 hours	69	30.1
	More than 12 hours	14	6.1

2.2 연구도구

2.2.1 소진

소진은 MBI(Maslach Burnout Inventory)[5]에 대한 변안판[20]을 Chung[3]이 유아교사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수정한 22문항의 소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3개 요인(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성취감 결여)으로 구성된 7점 평정식(0=전혀 없음~6=매일)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1로 제시되었으며[3],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2.2.2 정신건강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은 한국정보화진흥원[21]의 정신건강 문제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32문항의 4개 요인(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으로 구성된 4점 평정식(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5로 보고되었으며[22],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2.2.3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Neff[18]의 SCS(Self-Compassion Scale)의 국내 타당화 연구를 거친 26문항의 한국판 자기자비심 척도[2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5점 평정식(1=거의 아니다~5=거의 항상 그렇다)의 6개 요인(자기친절-자기비판, 보편적 인간성-고립감, 마음챙김-과잉동일시)으로 구성된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1로 제시되었으며[23],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먼저 사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즉,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의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 얻어졌으므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를 가급적 제거하기 위해 처음부터 3개 변인 연구도구의 리커트식 응답체계가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후 CMB 확인을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문제인 자기자비의 조절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PROCESS macro를 활용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변인의 $\pm 1SD$ 값을 이용한 뽑기식 접근(pick-a-point approach)인 단순회귀선(simple slope) 및 조절변인의 모든 값에 대한 신뢰구간인 신뢰밴드(confidence bands)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조절변인(자기자비)의 영향력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였다.

3. 결과

3.1 사전 분석

먼저 주요변인의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서 살펴보면, 소진은 자기자비와는 부적 상관($r = -.32, p < .01$)을, 정신건강적 문제와는 정적 상관($r = .26, p < .01$)을 나타냈으며, 자기자비는 정신건강적 문제와 부적 상관($r = -.57, p < .01$)을 보였다. 이들 세 변인의 왜도(skewness)는 $-.48 \sim .73$, 첨도(kurtosis)는 $-.03 \sim 2.51$ 에 분포하여 정규분포의 조건(왜도 < 2 , 첨도 < 7)을 충족하였다[24]. 이어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한 결과, VIF는 1.21~1.27로 1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25]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결과는 전체 분산의 20.89%만을 설명하여,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26] 다음 분석단계로 진입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i>M</i>	<i>SD</i>	Correlation		
			1	2	3
1 Burnout	60.11	15.32	—	-.32**	.26**
2 Self-compassion	84.61	20.54		—	-.57**
3 Mental health problems	69.84	16.08			—

** $p < .01$

3.2 조절모형 분석

자기자비가 소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시입력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Table 3), 이때 연구대상 기술 시 제시한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Table 1)은 보다 엄격한 효과분석을 위해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즉, 보육교사의 연령은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머지 결혼상태, 학력, 근무

년수, 일평균 근무시간은 범주변수이기 때문에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변인으로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Variable	Criterion: Mental health problems				
	<i>B</i>	<i>S.E.</i>	<i>t</i>	<i>F</i>	<i>R</i> ²
Burnout	.14	.06	2.41*	11.50***	.50
Self-compassion	-.38	.04	-8.82***		
Burnout × Self-compassion	-.01	.00	-7.48***		

* $p < .05$, *** $p < .001$

그 결과를 Table 3에서 보면, 보육교사의 소진은 정신건강적 문제를 높이는 반면($B = .14, p < .05$), 자기자비는 정신건강적 문제의 감소에 기여하였다($B = -.38, p < .001$). 이어서 소진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항의 결과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냈다($B = -.01, p < .001$). 이에 자기자비의 영향력과 그 패턴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고자 단순회귀선 및 신뢰밴드를 검토하였다.

Fig. 1의 상호작용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자비 수준이 낮을 때($-1SD = -20.54$) 소진이 많아지면 정신건강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t = 6.07, p < .001, 95\% CI = .28, .55$),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1SD = +20.54$) 소진이 많아지더라도 오히려 정신건강적 문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 = -2.17, p < .05, 95\% CI = -.28, -.01$).

더불어 Johnson-Neyman(J-N) 기법을로 자기자비에 따른 소진의 조건부 효과에 대한 유의영역을 Fig. 2에서 살펴보면, 자기자비가 1.83보다 작거나 19.43보다 클 때 조절효과가 유의하고 그 사이의 값은 조절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조절변인인 자기자비가 19.43보다 큰 경우 단순기울기의 부호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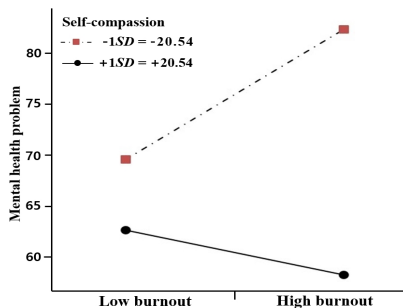


Fig. 1. Interaction effect of burnout and self-compassion on mental health 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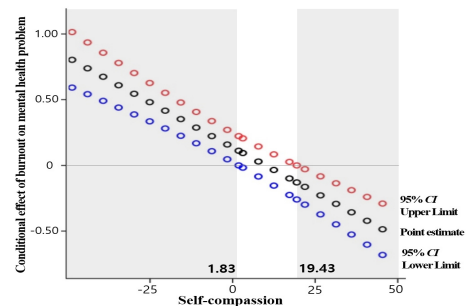


Fig. 2. Confidence bands for the effect of burnout on mental health problems at values of self-compassion

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소진이 증가하더라도 정신건강적 문제가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자비가 1.83보다 작은 경우, 단순기울기의 부호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소진이 적어지더라도 정신건강적 문제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든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기자비가 보육교사의 소진이 정신건강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자기자비는 소진이 정신건강적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요구가 가져올 수 있는 소진을 우려하여, 이들의 개인자원, 즉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변인인 자존감이나 효능감에서 나아가, 자신을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개념인 자기자비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소진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유무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소진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소진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진과 우울의 정적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27] 외에도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하게 보육교사의 소진이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2,28]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사건·사고를 일면 설명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충동성 및 공격성은 창의성과 같은 인간의 긍정적 속성과 관련성을 가지므로[29,30], 문제적 양상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동성의 정도가 높을 때, 자기통제의 곤란, 탈억제 현상이 동반되므로[31]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 낼 리는 없다. 공격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자체가 공격행동 및 파괴적 사건으로 연계되지는 않음에도, 좌절, 도발, 고갈의 상황이 지속될 때, 즉 소진의 누적으로 훨씬 후에 경미한 촉발요인을 보인, 정확한 목표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전위된 공격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다[32]. 또한 불안과 우울은 과거부터 한결같이 자살 사고 및 행동과 가장

관련 높은 단일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33,34]. 이러한 극단적 상황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무기력으로 인해 위협받을 교수의 질, 영유아 및 학습자에게 끼칠 정서적 영향의 파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소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소진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발현되는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비는 소진이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는 역할로 기능하였다. 자기자비의 수준이 낮을 경우 소진의 증가는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소진의 증가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주어, 소진과 정신건강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유사하게 소진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요컨대, 자기자비는 교사들의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으로[14],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우리 인간의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로는 현 사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보육교사와의 면담분석을 진행한 한 연구[35]는 COVID-19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부정적 시선에 대한 속상함과 스트레스, 확진교사에 대한 감정이입 등의 주제를 보육교사로부터 도출해내었다. 여기서 COVID-19에서 오는 소진적 상황이 정신건강 문제와 연계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가 제시한 속상함, 부당함, 죄책감, 걱정 등의 정서에서 볼 때 자기자비가 유용하게 제안될 수 있다. 자기자비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회피 대신 적극적으로 인식하되, 사려 깊은 친절, 이해 및 보편적인 인간 조건으로 수용하게끔 하는 효과적 정서조절 기제로 평가받고 있으며[18], 특히 현 상황에 매우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 관련 각종 법제와 운영관리 정책, 인적 관리 지원구도의 쇄신은 전제되어야 한다는 [1] 가정 하에, 삶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절인자이자 보호인자로 자기자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의 긍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은 계속해서 탐색될 필요가 있는데, 자기자비는 그 자체로도 효용성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더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원 및 강점을 지속적으로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인적 관리 차원에서 치료적 개입도 필요하지만, 예방적·선제적 개입을 위한 정

신건강 커리큘럼 내에 자기자비가 포함될 경우 더 큰 부가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Y.-S. Kim, M.-S. Chu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ediating role of teaching efficacy belief",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1424-2435, 2014.
DOI: <http://doi.org/10.5762/KAIS.2014.15.3.1424>
- [2] E.-M. Koo,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health status and burnout on their quality of lif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99, pp.1-17, Jul. 2016.
- [3] M.-S. Chung,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33, pp.183-204, 2013.
- [4] D.-H. Jung, J.-O. Yoon, O.-K. Jung, "Development of the evaluate scale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role in the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elementary school",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5, No.3, pp.185-206, Jun. 2011.
- [5] C. Maslach, M. P. Leiter, W. Schaufeli, Measuring burnout, In S. Cartwright, C. L. Coop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organizational well 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86-108.
DOI: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211913.003.0005>
- [6] M. S. Adil, M. Baig, "Impact of job demands-resources model on burnout and employee's well-being: Evidence from the pharmaceutical organisations of Karachi", *IIMB Management Review*, Vol.30, No.2, pp.119-133, Jun. 2018.
DOI: <https://doi.org/10.1016/j.iimb.2018.01.004>
- [7] S. Baek,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in Gyeonggido, Policy Report 2018-21,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Korea, pp.35-36.
- [8] E. M. Skaalvik, S. Skaalvik, "Teacher job satisfaction and motivation to leave the teaching profession: relations with school context, feeling of belonging, and emotional exhaus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27, No.6, pp.1029-1038, Aug. 2011.
DOI: <https://doi.org/10.1016/j.tate.2011.04.001>
- [9] K.-R. Hwang, I. Y. Ko,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care teacher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ies and individual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1, No.1, pp.117-137, 2005.
- [10] C. Fiorilli, S. De Stasio, P. Benevene, D. F. Iezzi, A. Pepe, O. Albanese, "Copenhagen Burnout Inventory (CBI): A validation study in an Italian teacher group", *TPM-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Vol.22, No.4, pp.537-551, 2015.
DOI: <https://doi.org/10.4473/TPM22.4.7>
- [11] M.-S. Chung, "Convergence study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among personal assista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buffering role of self-regul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in press.
- [12] S. H. Bae, Y. H. Kim, S. Y. Han, "Effects of job stress, ego-resilience and burnout on teacher's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Welfare*, Vol.18, No.1, pp.233-258, 2014.
- [13] S. Ward, "Filling the world with self-esteem: A social history of truth-making",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21, No.1, pp.1-23, 1996.
DOI: <https://doi.org/10.2307/3341430>
- [14] M.-S. Chung, "Relation between lack of forgiveness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Psychological Reports*, Vol.119, No.3, pp.573-585, Aug. 2016.
DOI: <https://doi.org/10.1177/0033294116663520>
- [15] P. E. West, F. C. Lunenburg, M. T. Hines III, "Teacher quality variables and efficacy for teaching minority students", *Education Leadership Review of Doctoral Research*, Vol.1, No.1, pp.39-57, Mar. 2014.
- [16] C. Sedikides,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5, No.2, pp.317-338, 199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5.2.317>
- [17] R. F. Baumeister, K. D. Vohs, "Narcissism as addiction to esteem", *Psychological Inquiry*, Vol.12, No.4, pp.206-210, 2001.
- [18] K. D. Neff,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Vol.2, No.3, pp.223-250, 2003.
DOI: <https://doi.org/10.1080/15298860309027>
- [19] K. D. Neff, "Self-compa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onstructivism in the Human Sciences*, Vol.9, No.2, pp.27-37, 2004.
- [20] S. Park,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Counselors Burnou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20-21, 47-49, 2001.
- [2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ird standardization of Korean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p.170, NIA, 2011, pp.149-152.
- [22] D. Kim, Y.-J. Chung, Y. Lee, B. Kim, H. Je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youth smartphone addiction self-report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7, No.3, pp.319-335, 2016.
DOI: <https://doi.org/10.15703/kic.17.3.201606.319>
- [23] H.-J. Jin, K.-H. Lee,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7, No.2, pp.1-20, 2009.

- DOI: <http://doi.org/10.35151/kyci.2009.17.2.001>
- [24] P. J. Curran, S. G. West,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No.1, pp.16-29, 1996.
DOI: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25] R. M. O'Brien, "A caution regarding rules of thumb for variance inflation factors", *Quality and Quantity*, Vol.41, No.5, pp.673-690, 2007.
DOI: <https://doi.org/10.1007/s11135-006-9018-6>
- [26] P. M. Podsakoff, S. B. MacKenzie, J.-Y. Lee, N. P. Podsakoff,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8, No.5, pp.879-903,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88.5.879>
- [27] H.-J. Kim, J.-S. Kang,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casino dealers' burnout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2, pp.276-28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276>
- [28] H. Y. Kim,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office stress on happiness and the mediation effect of teacher effective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9, pp.331-337, 2020.
DOI: <http://doi.org/10.5762/KAIS.2020.21.9.331>
- [29] D. A. Kipper, D. J. Green, A. Prorak, "The relationship among spontaneity, impulsivity, and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Vol.5, No.1, pp.39-53, 2010.
DOI: <https://doi.org/10.1080/15401381003640866>
- [30] M. M. Kashapova, T. V. Ogorodova, S. A. Pavlova,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creativity in senior preschool children", *Proceedings of Annual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Moscow, Russia, pp.264-268, May 2016.
DOI: <https://doi.org/10.1016/i.sbspro.2016.10.121>
- [31] S. N. Mullins-Sweatt, H. L. DeShong, G. J. Lengel, A. C. Helle, R. F. Krueger, "Disinhibition as a unifying construct in understanding how personality dispositions undergird psychopatholog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80, pp.55-61, Jun. 2019.
DOI: <https://doi.org/10.1016/j.jrp.2019.04.006>
- [32] W. C. Pedersen, C. Gonzales, N. Miller, "The moderating effect of trivial triggering provocation on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No.5, pp.913-927, 200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8.5.913>
- [33] G. L. Klerman, "Clinical epidemiology of suicide",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48, pp.33-38, 1987.
- [34] J. Sareen, B. J. Cox, T. O. Afifi, R. de Graaf, G. J. G. Asmundson, M. ten Have, M. B. Stein, "Anxiety disorders and risk for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of adul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62, No.11, pp.1249-1257, Nov. 2005.

DOI: <https://doi.org/10.1001/archpsyc.62.11.1249>

- [35] Y.-L. Choi, "A study on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child care teachers and changes in their daily routine in centers after COVID-19",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22, No.1, pp.253-279, 2020.

DOI: <https://doi.org/10.15409/riece.2020.22.1.12>

정 명 선(Myung-Sun Chung)

[정회원]



- 1999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0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심리전공 (이학박사)
- 2009년 9월 ~ 2011년 2월 : 생명장심리상담센터 소장
- 2011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교수

<관심분야>

상담 및 미술치료, 긍정심리, 교육심리